

# 강진 마량항 ‘부끄러운 美港’

### LED 조명등 깨지고...목재 난간 훼손...쓰레기 악취 까지 112억 투입한 관광 인프라, 관리 부실·이용객 무질서 몸살

“LED 조명등은 깨지고, 난간은 흔들흔들, 산책로는 낚시꾼이 점령...”  
112억 원을 들여 미항(美港)으로 조성된 강진 마량항이 관리부실과 이용객들의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해 설치된 LED 조명등을 비롯한 일부 시설물이 완공 3개월여 만에 파손되는 등 부실공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강진 마량항은 지난 2006년 9월 112억 원이 투입돼 3곳의 방파제에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높이 3m)와 야외무대, 산책로, 야간 경관 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후 매주 토요일이면 전국에서 관광객 1만여 명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 후 2년이 지나면서 관리부실과 관광객의 무질서로 시설물 곳곳이 파손되는 등 미항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야간 미관 조성을 위해 동편 방파제 산책로 바닥에 설치한 LED 조명등은 파손된 채 방치되면서 두꺼운 유리조각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고, 전기선은 외부로 노출돼 감전사고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피아노 건반을 형상화한 LED 조명등의 경우 완공 3개월여 만에 파손된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강진군은 수개월째 LED 조명등의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또 일부 방파제 바닥과 옹벽은 균열이 생겨 바닥 마감재가 갈라져 있는가 하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일부 목재난간도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완공된 서편 방파제의 경우는 주차장 중간이 내려앉아 비단 오면 주차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마량항에 낚시꾼들이 몰려들면서 항구 곳곳에 각종 음식류와 낚시 떡밥 등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함께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일부 낚시꾼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방파제 산책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올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진군측에 관련 시설 수리와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민 윤모씨는 “올 3월부터 LED 조명등에 대한 시설 보수 등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면서 “강진군의 무관심으로 인해 미항 마량항의 아름다움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마량항을 조성한 목포 서해어업사무소에 관련 시설물의 수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당시 시공회사가 시설물 수리를 미루는 바람에 방치되고 있다”며 “해당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진 마량항 방파제에 설치된 LED 조명등이 깨진 채 방치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전남 전통시장 현대화

### 국비 등 100억 투입...나주 성북 등 5곳

나주 성북과 화순 등 전남지역 전통시장 5곳에 대한 시설현대화가 추진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2008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482억원 가운데 전남이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나주 성북·금계 시장의 통합이설과 광양시장 광양시장 주차장 설치, 담양군 창평시장 주차장 조성, 화순군 화순시장 주차장신설·노후시설 정비, 강진군 강진상설시장 아케이드 사업 등에 각각 20억원씩을 투자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지역대표시장 육성과 현

대화모델개발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비지원을 신청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설현대화 국비지원사업에는 지방비를 포함, 총 148억원이 투입되며 주차장, 아케이드, 공설마트 등을 건립해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시장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인영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전통시장에 태양광 가로등 및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고 차별화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통시장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심청 상품권’ 곡성경제 효녀 됐다

### 올 판매액 25억7,000만원

곡성군이 발매하는 심청상품권 판매액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이 발행한 심청상품권의 올해 판매액이 29일 현재 25억7천만원으로 올해 목표액 25억원을 넘어섰다.  
심청상품권은 2001년 처음 발매돼 2006년까지 연 평균 판매액이 4억원 정도에 그쳤으나 작년 한해 20억원

여치가 팔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상품권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서 지역 중소기업인과 군민 등으로 구매 계층이 크게 확대되고 1%의 수수료 부담때문에 가맹점 등록을 꺼리던 업소들의 가맹점 등록도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청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등 3종류가 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꼴찌’

### 작년 보급률 고작 26% 전국 평균 64% 못미쳐

전남지역 도시가스 가용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여수) 의원이 2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도시가스 가용 보급률은 26.3%(전체 76만 5천 729가구 중 20만 1천 281가구에 공급)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이 같은 보급률은 수도권의 도시

가스 가용 보급률 81.5%와 전국 평균 보급률 64.4%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또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 2003년 22.3%에서 2007년 26.3%로 3년 동안 불과 4%포인트 상승해 타 시도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충남은 2003년 도시가스 보급률이 20.2%에서 2007년 32%로 11.8%포인트 높아졌고 경남은 2003년 29.5%에서 2007년 40.6%로 11.1%포인트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10%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서울=박진표기자 jkpark@

# 합평 ‘농업용 무인헬기’ 도입 추진

합평군이 농업용 무인헬기를 도입한다.  
합평군과 지역농협은 농촌 일손부족과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무인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합평군은 올해 9천 500 ha의 면적에 3천 254 농가가 수도작 벼를 재배했으나 인건비 급등과 노령화로 인해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인접 장성군을 비롯해 북산안

농협, 고흥 흥양농협 등 일부지역에서 농업용 무인 헬기를 활용해 저렴한 살포 비용(3.3m당 25원)으로 유기질 비료나 미생물 농약을 효과적으로 방제(시간당 10ha)하고 있어 농민들을 중심으로 헬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석형 군수는 “무인헬기 도입의 필요성에 농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1대를 구입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

# 완도 노인 게이트볼 친선대회 열려

제 4회 완도군수배 노인 게이트볼 친선대회가 지난 24일 완도군 공설운동장 게이트볼 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12개 읍·면 노인 대표선수들을 비롯해 김중식 군수, 차용우 의원, 김두석 완도해경서장, 김중식 완도노인회장,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전천후 실내체육관이 건립돼 우천에 관계없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게이트볼 경기가 해마다 활성화되며 군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영진기자 ejchung@



농산물 홍보를 위한 길이 5.5m, 높이 5m인 세계 최대 규모의 황소 형태 청동 조형물이 영암읍에 설치됐다.

# ‘황소와 초동’ 조형물 영암 농축산물 홍보

### 읍 로터리 중앙에 세계 최대 규모 설치

영암군이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황소 청동 조형물을 설치했다.  
영암군은 “최근 사업비 3억 5천 800만 원을 들여 영암읍 로터리 중앙 쪽에 황소 청동 조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길이 5.5m, 높이 5m, 너비 1.8m의 ‘황소와 초동(草童)’을 배치하고 주변에 너비 2.5m, 높이 3m 규모의 농산물 청동 조형물 8점을 설치했다”고 밝혔

다.  
전국 11위의 대규모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함께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 9월 조형물 설치 현상 공모를 통해 농민들의 버팀목으로 삶의 예환을 함께한 순박하고 근면한 동물인 소를 중심 주제

로 부지런하면서도 여유로움을 갖고 믿음성을 주는 모습과 주변에 무화과, 수박, 배, 대풍감, 고구마, 무, 배추, 달걀이 쌀 등 영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조형화한 ‘황소와 초동’을 선정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영암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축산물을 상징하는 야외 홍보 조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로터리 주변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광주 CBS 창립 47주년 기념

소강석 목사와 함께하는

# 인름다운 가을 동행

-광주시민 복음화 대성회-

가을로 가는 복음의 길

9월 29일 (월) 오후 6시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광주 CBS 기독교방송

후원: 김대중재단, 기독교 교단단체, 광주 시민회, 김대중재단

주최: 김대중재단, 기독교 교단단체, 광주 시민회, 김대중재단

주최: 김대중재단, 기독교 교단단체, 광주 시민회, 김대중재단

주최: 김대중재단, 기독교 교단단체, 광주 시민회, 김대중재단